

1	③	2	①	3	①	4	④	5	⑤
6	⑤	7	①	8	②	9	③	10	②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④	17	③	18	⑤	19	①	20	④
21	①	22	④	23	②	24	④	25	⑤
26	②	27	④	28	③	29	②	30	③

## 해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흰 말’을 뜻하는 것은 ‘白馬’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ㄱ. 옛－지금, ㄴ. 살다, ㄷ. 하늘－땅, ㄹ. 허물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인기 ② 인격 ③ 인물 ④ 인간 ⑤ 인정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염두는 ‘생각의 시초’라는 뜻으로, 마음속을 뜻하는 말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制는 음이 ‘제’, 부수가 ‘刀(リ)’, 총획은 ‘8획’이며, ‘제정(制定)’은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이라는 뜻이다.
- [출제의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잡채 ② 문어 ③ 녹차 ④ 계란 ⑤ 춘권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보호 ② 안락 ③ 신용 ④ 공평 ⑤ 정의
- [출제의도]** 학습 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북(북) ② 바퀴(륜) ③ 집(가) ④ 소리(음) ⑤ 가다(행)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제시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용두사미(龍頭蛇尾)’이다.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함을 이르는 말이다.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함.’이라는 뜻의 성어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가로 열쇠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고, 세로 열쇠는 ‘언중유골(言中有骨)’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① 군다(고) ② 인하다(인) ③ 혼인(인) ④ 두루(주) ⑤ 한가지(동)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의 시작이요, (작은) 것은 큰 것의 근원이다.  
빨리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다’를 뜻하는 ‘소(小)’는 의미상 ‘대(大)’와 상대된다.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곡식을 탐내다가 사로잡힌 새를 통해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① 강요 ② 비난 ③ 언쟁 ④ 위선 ⑤ 욕심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 일의 근심을 면한다.  
일시(一時)는 ‘짧은 시간’을, 백일(百日)은 ‘긴 시간’을 뜻한다.
-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사흘 갈 길을 하루에 가고 열흘 논다.  
‘일을 처음부터 너무 급히 서두르면 도리어 더디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에 이른다.

-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이심전심 ② 삼인성호 ③ 아전인수 ④ 어불성설 ⑤ 우공이산

- [19~20]**
-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것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더해지는 바가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로 줄어드는 바가 있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如是 ‘~같다.’로 풀이한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은 문맥상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반복되다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된다.’는 의미이다.

- [21~22]**
- 맹자가 말했다. “인하면 영예롭고 불인하면 치욕을 당하니, 지금 치욕을 싫어하면서 불인함에 처함은, 이는 습한 곳을 싫어하면서 낮은 곳에 처하는 것과 같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① 증오 ② 선악 ③ 악행 ④ 악화 ⑤ 악몽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곳은 습하기 쉬운데,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矛盾)된 행동이다. 귀감(龜鑑)은 ‘거북과 거울’이라는 뜻으로,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는 말이다. 조장(助長)은 ‘자라는 것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킨다는 말이다.

- [23~24]**
- 김시습이 <중략> 세 살 때 그 할아버지께 물었다. “어떻게 시를 짓나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일곱 글자를 이어 놓은 것을 시라고 한다.”(김시습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러하다면 일곱 자를 이어 볼 테니 첫 글자를 불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봄 춘 자를 부르자, 곧 응하여 말했다. “봄비가 새 휘장에 내리니 (봄) 기운이 열리네.”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문맥상 何以는 ‘어떻게’로 풀이한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김시습은 세 살 때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

- [25~26]**
- (가) 낭군이 달이 뜨면 온다고 했는데, / 달이 떠도 낭군은 오지 않네. / 생각건대 응당 그대 계신 곳에는, / 산이 높아 달이 떠오르는 것이 더딘가 보네 요.  
(나) 그대를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절로 그대를 생각하게 되니, / 어떠한 일로 늘 서로 헤어져야 하는지 그대에게 묻습니다. / 까치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 몇 번이나 헛되이 놀라 저녁까지 이르렀던가?

-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 놀라다
-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에서 헤어진 낭군은 달이 뜨면 오겠다고 시적 화자와 약속을 했다. 그런데 정작 달이 떠도 낭군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 시적 화자는 기다림을 포기하기 보다는 낭군이 계신 곳은 산이 높아서 달이 늦게 뜨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나)에서 시적 화자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임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임에게 묻고 있는 시적 화자는 까치가 올 때마다 임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기다리지만, 번번이 헛일이 되고 만다.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자식을 길러 봐야 아버지의 노력을 안다. ②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 ③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날아간다. ④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 [28~30]**
- 사시의 명절은 대략 우리나라와 서로 비슷하다. <중략> 단오와 중원[백중날]이 가장 좋은 명절이다. 단오에는 집집마다 기를 세워서 전쟁을 익히는 놀이를 하니 우리나라에서 두 남자가 씨름을 하는 종류와 같은 것이다. 중원[백중날]에는 산에 올라가 등을 달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데, 매 사람이 각각 하나의 등을 달아서 자손이 많은 자는 혹 등이 수십 개에 이른다. 술과 음식을 모두 갖추어서 집안사람을 먹인다고 하더라.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은 ‘이르다’로 쓰였다.
-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① 동해－수식 관계 ② 존재－병렬 관계 ③ 연소－주술 관계 ④ 하차－술보 관계 ⑤ 작문－술목 관계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해유록』은 조선 후기의 문장가 신유한이 1719년 제9차 통신사(通信使)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일본에서 겪은 일들을 일기체 형식으로 서술한 기행문이다. 본문의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유록』에는 당시 신유한이 직접 목격한 일본의 문화, 풍속,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해유록』에 따르면 일본은 단오에 남자들이 전쟁을 익히는 놀이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씨름과 유사했다. 각력(角力)은 다리 힘을 서로 겨룬다는 말로 ‘씨름’을 뜻한다.